

# '금강경' 소의 32%뿐... 적합성 논의일دت

## 가사불교연구 「승가삼장」 설문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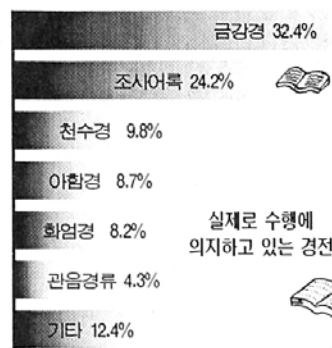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승가공동체의 교학과 수행체계의 현주소는 '정체성이 희박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학체계 및 수행공동체의 뚜렷한 정체성 확립이 불교발전의 요체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를 계기로 승단의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진 셈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삼장(三藏) 및 선장(禪藏)을 포함한 교학체계에 대한 이해 측정 △교학체계에 대한 수행자 개개인과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인 △수행체계와 교학체계의 상관관계 여부 △교화주체로서의 승가구성원의 대사회적 역할 점검을 위한 교화용 경전과 수행주체가 의지하는 경전과의 일치 여부 등 크게 4가지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이러한 4항목의 결과는 그동안 논란이 왔던 부끄러운 승가교육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총체적으로 '불교문헌의 체계'나 '근본교학체계'를 중시하거나 종래에 근거한 '종학(宗學)의 체계'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전의 경우 스님들은 금강, 조사어록, 화엄, 법화, 정토, 관음경 등 공동체적 일관성 없이 신빙한 소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강원외의 기본교과과정에는 없는 <법화경> 등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이 자신이 의지하는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님 각자에게 있어 종단교육상의 교학전승과 개별적 수행체계가 서로 유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교학체계와 수행체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종래에 심각한 삼장체계 확립이 필요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응답자의 80%가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삼장에 의지



(일관된 교학 및 수행체계에 의지하고 있는가)

## 기본교육 부재... 수행-교화경전 불일치 사상교육 근본 경전 '아함경' 추천 눈길

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인 교학체계가 수행체계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울·론 삼장을 비롯한 선장 및 아록 등이 종래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선요> <선문활요> <선기구강> <육조단경> <일체종> 등 스님 개개인의 임의적 선택에 의한 개별서를 수행의 소의선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 역시 종래에 입각한 선장체계 확립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설문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함경> 등 초기경전을 소의경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했다는 점이다. 승가교육에 필요한 삼장으로 <아함경>을 추천한 경우가 많았다(30%)는 것은 포교도 중요하지

만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위해서는 근본경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또 <금강경>이 '조계종 소의경전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반 수(51.4%)에 그친 이유로 '교화에 응용하기 어렵다'거나 '실제 수행에 도움이 못된다'는 견해가 제시됨으로써 소의경전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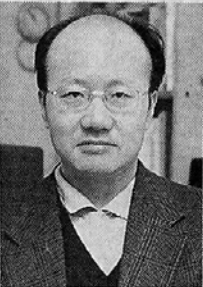
## 시론

### 위기의 본질 바로 보자

노동법, 안기부법 과동으로부터 시작해 한보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무능과 욕망이 결합해서 빚어낸 난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심지어 시종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정권창출을 위한 일련의 주도면밀한 시나리오라는 설도 떠돌고 있다. 공공매체에 대한 기함의 불신이 그같은 견해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 정치 고질병 무엇인가

사실 현대의 매체들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생산, 가공하고 또 분배하는 정보공중물이다. 따라서 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사태가 왜곡, 전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낱말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재 나라 자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작금의 사태는 미봉책이나 일기응변이 아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위기의 현실은 어떠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는가.



임홍빈 <고려대 교수·철학>

공공부문의 인사와 정치적 배려에서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의 구별이 모호한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기령 선거철만 돌아오면 지역이 정치적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전근대적인 정치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지연과 함께 학연이나 성에 따른 차별이 지배하는 정치문화는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다. 또 정치가 지식과 경륜, 판단력 등은 없어도 마담발처럼 정치판을 헤집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넷째, 한보의 거대한 절강공장은 적정성장과 최대성장의 차이를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사건이기도 하다. 삶의 질이나 훌륭한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무작정 소비하는 현대사회는 분명 자기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무한 욕망과 무한소유를 조장하고 이를 방지하는 정치는 생명지향적인 정치로 볼 수 없다. 거대한 산업에 과도하게 국가경제의 운명을 의탁할 때, 우리 삶의 공동체는 해체

되고 우리의 강과 바다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1세기의 생존조건에 적합한 최적성장의 의미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생태학적 전망과 경제원리가 접목되지 않는 미래는 입담할 수 밖에 없다.

#### 책임있는 결단 아쉽다

예컨대 수요공급이라는 시장논리를 넘어서는 생태적 전망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을 비롯한 자원과 에너지원이 빈약하고 땅이 좁은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의 거대한 중화학공업 시설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과제들은 우리 모두의 각성과 회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치인이나 재벌, 선택된 지식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회생을 자처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과제의 해결은 점점 요원해질 것이다. 실로 책임있는 사람의 책임있는 결단이 무엇보다 아쉬운 시점이다.

## 합의의 삶을 살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하수 <관음포교원장>

지난 1월에는 인도의 불적(佛跡)을 순례(巡禮)할 기회가 있었다. 사위성을 참배하면서 살인마로 잘 알려진 '앙구리마라'가 거쳐했다는 돌굴을 들여다보게 됐다. 그때 살기(殺氣)등등한 '앙구리마라'가 사람들을 닦아내려고 살해하는 그 당시의 참혹했던 광경이 상상되었다. 동시에 부처님의 엄숙하고 근엄한 위엄과 설법에 교화되어 얻드려 참회(懺悔)하는 '앙구리마라'의 절구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저와 같은 무서운 죄를 지은 중생도 용서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앙구리마라의 질문에 부처님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여 뉘우치는 사람은 마치 바다에 흘러온 휴탕물이 맑아지듯 그

과거의 죄업이 사라지는 것이다"고 답하신 것이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참사의 길은 그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참회하여 새

## 휴탕물이 맑아지듯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심성과 행동이 매우 거칠어 어른들이 생각조차 못하는 일들을 저질러 종종 사회를 혼란케 한다. 내가 불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가끔 몇몇 학생들이 학생 신분을 망각하고 탐심의 대열에 끼여들기

도 한다. 그럴 때마다 불심(佛心)깊은 선생님들이 탈선한 학생들에게 학교 법당인 연화당(蓮華堂) 부처님 앞에서 참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시적인 잘못을 참회하고 새사람이 되어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온다. 하지만 업장이 두터운

타인진 진정으로 참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학교장으로서 그만두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최종 결정을 내릴 때면 내 마음은 항상 괴롭다. 그리고 스스로 반문해 본다. 그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였는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나 또한 진정으로 참회하지 못했기 아닌가? <학행경(學行經)>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말로는 참회한다 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어찌 참회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곧 새 학년도가 시작된다. 저 999명을 살해한 살인마 앙구리마라도 진정으로 참회하여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듯이 새 학년도에는 나부터 참회의 삶을 실천해야 하겠다고 다짐한다. 참회란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생활 그 자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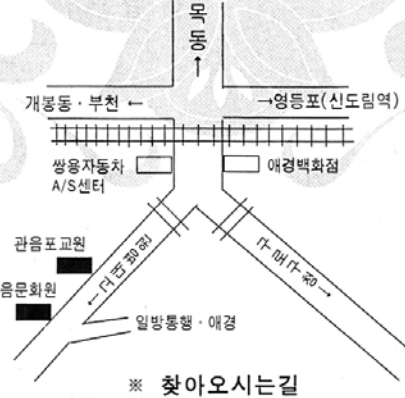
## 선망부모와 모든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한 천도대법회

천도재란 고인이 생전에 지은 모든 악업이나 원한관계 등을 해소하고 부처님의 자비로 극락세계에 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무명업식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납시다.

### 행사특징

- 1 영가 보살계 수계식 : 영가들에게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도록 영가 수계식을 거행하여 불명을 지어주고 보살계를 전해줌으로써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2 큰스님 초청법회 : 영가천도는 법이 높으신 큰스님을 모시고 성대하고 구족하게 치루어야 영가들을 올바르게 천도할 수 있습니다.
- 3 독경대회 : 천도재에 참가하시는 신도님들이 영가들에게 부처님 법을 들려주기 위해 천도재가 열리는 3일 동안 24시간 조를 편성하여 쉬지 않고 법화경을 독송합니다.
- 4 공연 : 천도재를 성대하게 치루어 영가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풀이 춤과 명상들을 초청하여 예술적으로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 5 전통작법 : 불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으로 영가를 위로하여 좋은 곳으로 천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6 법공양 : 구산 큰스님 카세트 테이프 「생활불교의 길」 일명 스님 강의 「엄부의 바른 길」 「천수경 강의」 카세트 테이프

영가 천도재 법사·예술인  
성수 큰스님  
혜정 큰스님  
박병천님(인간문화재) 외



### 행사일정

■ 일시 :	3월 7일 ~ 9일(음 1월 28일 ~ 2월 1일)	
■ 장소 :	관음포교원(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82-1/전화 863-9649)	
■ 내용 :		
3월 7일	10시	입재 및 전통작법에 의한 천도 의식
3월 8일	10시 30분	성수 큰스님 법문
	14시	혜정 큰스님 초청 법문
3월 9일	10시 30분	혜정 큰스님 법문 및 영가 보살계 수계식, 회향
	오후	공연(천도국, 박병천(인간문화재·전도국)님과 국악인들)



21세기 불교문화 선도하는  
관음포교원 · 관음문회관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82-1 TEL: 863-9649(대) FAX: 864-1066